

2015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자료집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킵시다! 9월 20일

교회학교
꼭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CONTENTS

목회서신	교회학교를 살리는 교사가 됩시다. 감독회장 전용재	3
설교	은혜의 세대여 일어나라 교육국 위원장, 중앙연회 감독 최재화	5
인사말	기독교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육국 총무 김낙환	8
주제글	교회학교 꼭 살아야 합니다. 교육교재부 부장 최임선	9
열정교사	단 하나뿐인 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주봉교회 교사 김자영	12
	오늘도 기도하면서 학교 앞으로 해군본부교회 교사 김현정	15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우리 반 한울교회 교사 박소정	18
열정교회	구수한 부흥 이야기 보리떡교회 목사 이재호	20
	중등부 특별한 전도 이야기 안산광림교회 전도사 이준호	25
특별자료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교목 차은혜	32

교회학교를 살리는 교사가 됩시다.

감독회장 전용재

기독교 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9월 셋째 주에 맞이하는 기독교진흥주일은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며 그 진흥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정된 주일입니다. 점점 교회학교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이즈음에 기독교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기독교교육의 진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가 누구인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교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학교의 부흥이 있고 교회학교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리교 교회학교는 매년 1만 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1만 명은 아니지만 6천 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열악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교사가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를 찾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교회학교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은 교사된 자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삼상 12:23-24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교사의 마음가짐을 살펴봅시다.

첫째, 교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는 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교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것을 보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들에게 의로운 도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먼저 교사들이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어린이들에게 흘러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학교의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고, 교회학교는 생명력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력은 교회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기독교진흥주일을 맞이하며 교사의 참된 정체성이 교회학교를 살리는 귀한 생명력으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은혜의 세대여 일어나라!

에베소서 2장 4~7절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위원장·중앙연회 감독 **최재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구원투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영적 리더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린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있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결단과 생명을 건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믿음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기까지는 수없이 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엡 2:7)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교는 지식의 현장입니다. 온갖 다양하고 복잡한 지식을 우리의 머리 속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잠 9:10).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책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공부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지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단 1:17).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벨론의 수많은 경쟁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이 십 배나 더해지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품고, 높이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궁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앉게”(4~7절)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유명한 철도 사업가가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거대한 철도사업을 성공했지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러자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아버지는 철도왕국을 건설하셨고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잖아요”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멀리 떠났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진정한 승리자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시기는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 환경에서 오는 한계를 발견하게 되면서 오는 불안과 좌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삶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갖는 일보다 절망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자유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감옥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뉴스에서 아프가니스탄 한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541명이 탈옥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탈옥한 죄수들은 무장세력 탈레반에 속한 죄수들인데, 땅굴을 파고 탈옥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굴을 판 게 아니고, 감옥 밖에서부터 320미터 지하 땅굴을 뚫는데, 장장 5개월 동안 대대적인 탈옥 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탈레반의 주요 지휘관들이 대거 탈옥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가두는 감옥에 갇힌 것은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나의 영원을 감옥에 가두는 영적인 현실 앞에서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갇혀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서 자유함을 빼앗아 갔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셋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문을 통과하는 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학문을 들어서면서 우리 앞에는 더 높은 장벽인 직장 사회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좌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대 청년실업자수가 41만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 노력했지만,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적들로 인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정적인 환경, 최악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기대와 관점을 바꾸어줍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 앞에 놓인 큰 산과 같은 환경과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학교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학교에서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십시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육국 총무 김낙환

2015년 9월 20일, 구월의 세 번째 주일은 감리교회가 82번째로 맞이하는 기독교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이 날은 1933년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백성의 서러운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제정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나라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장차 이 민족을 살리는 방법, 우리 민족의 희망은 오로지 기독교 교육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감리교회는 전국적으로 6500여 교회 160여 만 성도를 자랑하는 큰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수많은 감리교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선배들이 물려준 이 귀한 감리회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텐데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을 만한 우리의 신앙 후손들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다시 돌아온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고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 조선의 청년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행하시는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다시 자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꼭 살아야합니다.

교육국 교육교재부 부장 최임선

9월 셋째 주는 기독교교육진흥주일입니다. 82년 전 한국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 교회학교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제정하고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교회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침체를 걱정합니다. 이러한 침체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감소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영적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학교를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감리교회 교회학교 통계표에 의하면 1992년의 어린이 숫자는 273,35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줄다가 다시 2004년 271,992명으로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줄어듭니다. 2010년에는 202,881로 7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2011년부터는 19만, 18만, 17만대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상 통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의 통계는 좀 과거의 것이지만 1980-1990년의 10년 동안 10만 명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성결교회에서도 30% 감소를 보였습니다.

주일학교의 전성기는 1960년대부터였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일학교는 1980년대에 성숙기를 맞이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인 1960년대 교회학교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숫자를 넘어섰었습니다. 많은 교회학교의 어린이 숫자는 장년교인의 2-3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2040 한국교회의 미래지도』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주일학교가 장년의 30%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말

하는 30%는 높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 비율에 못미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30%씩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은 출생률의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한 가정의 어린이 숫자는 1/3, 혹은 1/4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인 것은 지금 교회학교의 어린이 숫자는 어린이의 출생비율이 감소하는 그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0-2040 한국교회의 미래 지도』에서는 교회학교 위기의 원인을 다음 몇 가지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교회학교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교회의 어린이는 돈이 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주일학교 예산부터 줄입니다. 교회학교는 어른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돌보는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를 전도하지 않았습니니다.

예전에 교회는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열정을 가진 교사와 사역자가 없습니다. 주일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최상의 헌신으로 여기는 교사와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셋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자녀조차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않는 교인이 많습니다. 지금 교회의 현실에 노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신앙의 전수률이 97%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아버지 혼자 믿을 때 57%가 전수되고, 엄마 혼자 믿을 때 70%가 전수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교회학교의 어린이가 출생률의 감소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교회학교의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면 이들이 청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시기에 교회의 어른들의 숫자가 줄어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결론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에서 살펴본 원인들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여러 면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면에서는 교회학교 담당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하다보면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어린이가 50% 이상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들을 전도하고 정착시키는 노력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학교를 살리는 가장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더나가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리교 출판국이 펴낸 『한국감리교인의 신앙생활과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평생의 종교를 결정하는 시기는 교회학교 시기라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80%가 교회학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 중 모태신앙인 경우 28.4이고, 63.9%가 다른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온 사람은 7.7%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의 전도가 없이는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도에 의해 나온 사람들은 주로 19세 이전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나이가 적을수록 종교적 사회화가 쉽다는 보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교회학교가 살아난다면 한국교회는 침체기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독교교육진흥주일에 교회학교를 살리는 전도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며 지체하지 말고 전도를 시작합시다.

교육국에서는 2015년 “신앙과 교육” 잡지에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실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소개했고, 각 반에서 열심히 일하며 교회학교를 살리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의 노력을 다시 실어봅니다. 이런 글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 힘써 노력합시다.

교회학교 꼭 살아야 합니다.

참고서적

1.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의 미래지도” (생명의 말씀사)
2. 이원규 “한국 감리교인의 신앙생활과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단 하나뿐인 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주봉교회 교사 김자영

녹차로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 이 곳 보성을 주봉리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반이 있습니다. 전교인이 열댓 명 남짓한 주봉교회(담임 김희태 목사)는 1985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서른 살이 된 장년이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땐 마을에 청년들도 많고 청소년들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한 쪽 산비탈에 자리 잡은 교회가 청년들의 아지트이자 사랑방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진학으로, 청년들은 취업으로 살던 곳을 떠나자 마을엔 점점 젊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나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봉교회 사정도 마을 사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생들로 시끌벅적했던 교회학교에 지금은 초등학생과 유치부 어린이들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4자매와 4남매인 두 가정의 어린이들로 꾸려진 특별한 교회학교로 말이지요.

우리 교회학교는 초등부와 유치부로 나뉩니다. 동생들 반은 목사님이 맡아 주시고 초등부는 교사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들로 구성된 우리 반은 2학년 친구 두 명과 4학년 친구 한 명입니다. 학년 차이가 있어서 분반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반 친구들은 지혜롭게 헤쳐 나간답니다. 2학년 친구들에게 어려운 말은 4학년 친구가 알려주고,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가 덧붙이는 이야기를 해 주면서 말이지요. 또 우리 반을 이룬 삼총사는 각각 4자매의 첫째, 4남매의 첫째, 둘째입니다. 그러다보니 때로 첫째들끼리, 혹은 자매끼리 뭉쳐서 한 친구가 본의 아닌 외톨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한번은 분반 시간에 팔씨름을 하는데 각 가정의 첫째끼리 맞붙게 되었습니다. 서로 나이와 체격은 다르지만 불타오르는 승부욕으로 도무지 승패가 갈리지 않아 결국 무승부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 언니를 응원한 친구가 못내 섭섭했는지 한 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 모두 숙연해졌고, 분반 공부를 서둘러 끝내고 함께 놀면서 다시금 서먹한 분위기를 풀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놀이를 좋아합니다. 그건 어느 반 어린이들이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놀이를 좋아한다고 모두가 우리 반 친구들처럼 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학교지만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반 친구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교회에서 노니다. 봄에는 교회 앞마당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고추모종에 지지대를 세우는 것도 우리 삼총사가 톡톡히 한 몫을 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뜯어다 씹을 싸서 먹기도 하고 방울토마토를 따서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벚꽃과 유채꽃이 만발했던 봄에는 예배를 마치고 꽃놀이를 하러 흠뻑 길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성은 가로수로 벚나무가 많아 봄이면 가는 곳마다 여행 온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예쁜 길이 많습니다. 여름이면 물총을 가지고 와서 가족 대항 물총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가족 대항 말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먹을 것 하나로 다시 파이팅하는 해맑은 개구쟁이 어린이들입니다. 여름 날 교회 마당에 자리 잡은 뽕나무에서 오디를 따먹는 재미도 오 집니다. 가을에는 목사님과 함께 오후의 따뜻한 별을 받으며 고추잠자리를 잡으러 다니거나 은행잎을 모아 소꿉놀이도 합니다. 사춘기가 빨라져서 감수성도 예민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빠져서 울기도 하지만 소꿉놀이를 즐겨 하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어린이들입니다. 지난겨울에는 교회로 마실 나온 동네 강아지들과 뛰어 놀고 텅구느라 주일마다 겉옷에 흠먼지와 개털을 잔뜩 묻히고 갔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맞이할 엄마의 표정이 걱정되는 주일을 몇 주간이나 보냈지요.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주일에 가장 즐거운 놀이는 사모님과 함께 가는 목욕탕 물놀이일 겁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실컷 놀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이렇듯 신 나게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반 친구들이지만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주봉교회에는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중고생이 예닐곱 명 있었습니다. 되새겨 보면 제가 교사로 있으면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열심히 나오다가 고등학교를 도시로 가면서 뜸해지거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새로운 교회를 다닌다고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나마도 연락이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올해는 대입 시험을 치르고 잠깐이라도 학비를 벌겠다고 도시로 나간 친구도 있고, 직장을 찾아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이임하시면서 전임 목사님과 정을 쌓았던 친구들은 새로 오신 목사님과 친해질 겨를도 없이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을 등지고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작은 교회 교사로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목사님을 범 교단 차원에서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비록 평신도이고 교사일 뿐이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내 교회를 지키는 일과 우리 반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학교 여덟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녹차의 고장 보성, 이 곳 주봉리에는 삼총사가 지키고 있는 세상 단 하나뿐인 우리 반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학교 앞으로!

육해공군본부교회 교사 김현정

우리 반 아이들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우리 교회를 먼저 소개드립니다.

“본부교회”는 육·해·공군이 모여 있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군장병과 군가족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교회로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지역 군가족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청년들은 믿음이 더욱 더 자랄 수 있게, 또 직업군인 가족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며 양육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각군 본부교회가 한 건물에서 연합하고 있는데, 교육부서는 각 군이 분담하여 책임사역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해, 충남논산, 천안, 충북 청주, 서울, 대전, 경북 포항...

여기는 바로 우리 반 친구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도천초등학교, 원정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자운초등학교, 청림초등학교... 여기는 우



리 반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입니다. 적게는 2번 많게는 7번 전학 다닌 아이도 있습니다. 심지어 1년에 두 번 전학한 친구들도 있구요. 우리 반 아이들 역시 아버지가 군인인 아이들이 80% 이상인데요, 이 아이들이 오늘 소개드리려는 “본부교회” 5학년 1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맡은 저는 남편이 해군장교인 해군가족으로서, 본부교회 소년부(5,6학년) 교사로 섬긴지 3년째 되는 초보 선생님입니다.

군가족 특성상 전입·전출이 불가피하여 올해도 어김없이 대폭의 인원 이동과 새로운 반편성이 있었고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의 특징이 다르지만 해가 바뀔 때 마다 아쉬웠던 것은 아이들과 더 친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나름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과 친해지기.

두 번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기입니다.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워낙 바쁜 관계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좋겠다는 생각에 방과 후 학교 앞에서 잠깐 얼굴을 마주보며 간식 챙겨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고작해야 10분의 만남이지만 이것이 쌓이고 싸이니, 아이들과 가까워지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3개 초등학교에서 오는 우리 반은 일주일에 한번 각 학교를 돌아가며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잠깐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주일 소년부 예배에 오면,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던 아이가 자리도 양보하고 제가 손들고 반갑게 인사면 수줍어서 외면했던 아이가 손들어 주고... 이런 작은 변화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맘을 열어주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해마다 1, 2월에는 이사를 가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3월말에 함께 실시한 “소년부 M·T-day!”. “세 가지 사귄”이라는 주제 하에 ‘하나님과의 사귄, 믿음의 친구들과의 사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의 사귄’이라는 소주제로 도전받고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더욱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실내게임과 실외 미션수행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걷는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주일에는 하나님과의 사귄, 믿음의



친구들과의 사귀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를 향한 관심과 섬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일 분반모임 시간에는, 2014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반드시 소개할 친구 세 명의 이름을 적고 마음에 품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다음번 학교 앞 분식집 모임에 함께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찬양대에 열심인 예은, 민지, 선균, 부모님과 새벽예배에 열심인 은규,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는 유소, 로은, MT-day때 리더로 열심히 섬겨준 수희, MT-day때 본심을 드러내고 선생님 살 빼는데 도움을 주는 규태, 루마... 각자의 개성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틀리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사, 칭찬받는 5-1반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보기 위해 학교 앞으로 갑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우리 반

한울교회 교사 박소정

2013년, 저는 섬길 분야를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청소년부 교사로서 고1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학년 아이들은 그 수가 꽤 있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 아이는 혜지라는 친구 딱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마저도 제게 “저 하나님 안 믿는데요.”라고 하며 Q.T. 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솔직한 아이였고 교회에도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새로 들어올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시며 격려해 주셨고, 저도 혜지를 담임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수련회에서 혜지와 함께 기도하며 솔직한 기도제목을 들은 적이 있었고, 저 또한 불과 4년 전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당시 목사님께 “저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라고 할 정도로 혜지와 너무 비슷한 모습과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일 당시, 저는 제 자신이 싫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기다려 주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혜지의 옆에 제가 있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혜지는 결국에 저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다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대부분이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이었고, 매주일 새 친구들이 여러 명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임 때부터 끈 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CCC에서 배운 <Follow-up>이라는 교재를 통해 기초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영접의 의미 등을 짚었고, 공과가 생긴 후로는 공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를 짚었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매주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했던 것, 그리고 삶을 통해서는 대학이 있는 충주에서 교회로 매주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정도 밖에는 없었습니다. 핑계일 수 있지만, 충주에서 말은 것들이 많아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관계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다른 교사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채워주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색해서 나눔도 기도도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아이들이, 그저 말씀에 있는 대로 참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사실만 전해주었을 뿐인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저희 받은 말씀의 적용점으로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겠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전도해 오기도 했습니다. 매주 내는 기도제목에 부모님과 할머니 등 가족들을 말하며 눈물짓고 함께 울어주며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노력하며 교회에 올 수 있음에 기뻐하는 등 너무나 예쁜 모습에 제가 더 그 아이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평소와 같이 예배한 후 기뻐하며 식당봉사 등으로 섬기기도 하고, 시험공부를 할 때는 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시험을 봤다는 간증도 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는 처음인데도 쉬는 시간에 워십을 하며 찬양하기도 했고, 요즘은 워십을 배워 예배시간에 워십팀으로 섬기기까지 합니다. 또한 드림을 배워서 드림으로 섬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스스로 찾아 누리는 아이들과 그 곁에서 2013년 한 해를 무사히 또 감사하며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구수한 부흥 이야기

보리떡교회 목사 이재호

보리 떡교회는 2010년 5월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5년이 지난 현재, 입교인 64명, 교회학교 재적 40여 명의 교회로 성장하면서 건 강한 자립교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지방 내 42개 교회 중 결산대비 20위의 교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학원선교를 평생의 비전으로 삼고 교목으로 섬기던 저는, 학원목회를 사임한 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3년 동안 부담임목사로서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 사랑하는 아내와 네 명의 자녀 그리고 제자 두 명을 데리고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보리떡교회 헌신적인 교사들



보리떡교회 중고등부 장학생 선발

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개척을 시작하였지만, 막상 맞닥뜨린 현실은 기대했던 장밋빛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개척하면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 올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몇 주를 지냈지만, 정작 찾아 온 것은 적막함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기에 오전에는 사모와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기독교교육을 전공했고 교육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학교 전문 사역을 감당했던 터라, 먼저 교회학교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모와 더불어 교회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거의 매일 찾아가 교문 전도를 하였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재정적으로도 그 어떤 전도물품도 들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보리떡!” 하고 인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보리떡!’을 외치며 인사하는 저와 사모를 이상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키득거리며 웃는 아이들도 있었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순수한 얼굴로 다가와 “보리떡이 뭐예요?”라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보리떡만을 외치며 전도하던 중,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친근감을 갖게 된 것은 소중한 결실이었지만, 그렇게 관계를 맺은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접촉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글을 썼다가 지우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제 마음 속의 울림 앞에 순종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교회학교를 세울 만한 협력자들을 합당한 때를 따라 수없이 보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를 찾아 온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자 하여 기도하던 중,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권사님께서 자신이 당분간 무상으로 떡볶이를 주겠다고 연락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분식집에 찾아 가서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한 달 치(4주 분량)의 떡볶이를 받아와서 매주 아이들에게 푸짐한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당분간 섬겨주시겠다고 하셨던 권사님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넉넉한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또한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축구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축구 공 하나를 들고 전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축구공 하나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축구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축구용품을 제공해 줄 분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역시 응답해 주셔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을 통해 선수 유니폼과 축구공 20개, 연습용 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물품 후원에 힘입어 축구부를 모집하였고, 그렇게 모집된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회학교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축구부를 창단하던 첫 해(2012년)에 지방 어린이 축구대회에 출전하여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출전에 놀라운 성과를 얻은 저희는 더욱 신명나게 축구부를 운영하였고, 다음 해(2013년)에는 지방 어린이 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지방을 대표하여 연회대회에 출전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또 하나 교회학교 부흥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뽀빠로 과자 공장을 운영하던 권사님의 아들이 아이들 전도에 쓰라며 3년 동안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뽀빠로 과자를 10여 박스나 보내주었습니다. 지금도 교문 앞 전도를 나갈 때마다 뽀빠로 과자를 가지고 나가는데, 인기가 좋아서 전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인형공장을 운영하던 분은 저희 교회학교 소식을 듣고 공장에서 만들던 가방고리 인형을 천 개 가량 보내주셔서 여름성경학교와 초청잔치 홍보에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척 첫 해 8명으로 시작한 여름성경학교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평균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등록하고 교육을 받고 수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헌신할 교사가 없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이 와서 봉사하게 하였고, 학교와 교회 제자들이 찾아와 교사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어느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줄 아시고 기도 중에 감동을 받으셨다면서 여름성경학교에 필요한 경비 전체를 3년 동안 현금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접 오셔서 2박 3일 동안의 모든 식사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까지 베푸셔서 저희 교회 성도는 큰 도전과 감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보리떡교회 교회학교는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존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학교는 교회 부흥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대

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출이 많은 기관이고 부서이다 보니,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현상유지 하는 데 급급해 왔습니다. 아이들은 세상보다 뒤떨어진 교육 시설과 환경 속에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교회학교의 교육은 세상의 교육과 비교하여 분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는 이러한 약점을 교사들의 눈물어린 헌신과 교회의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학교의 약점을 채웠던 요소들이 약화되고 심지어는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교회학교의 위기는 현대 사회의 현상인 저출산이나 학원중심의 생활패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학교로서의 특화된 의식과 역할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회학교는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이들과 학생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의 주체이고 실전 현장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들 속에 잠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일깨워야 하는 것이 교회학교의 특화된 사명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받으며 섬김받는 것이 당연한 모습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입맛만 맞춰주고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받되 올바른



지방 찬양 경연대회(2015) 금상수상



지방축구대회 우승



여름성경학교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내에서는 야단이나 책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여 아이들이 잘못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담당교사나 교역자가 상담하고 기도해 줍니다. 아이들의 심령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보리떡 교회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은 항상 밝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누구와도 친근한 교제를 나눕니다. 작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아이들과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깨우치고 서로 진정한 협력자로 여기는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학교를 살리는 것이 교회 부흥의 기초를 놓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학교에 전념을 다하다 보니 보리떡 교회학교를 다녀간 어린이들만 해도 200명이 넘게 되었고, 현재는 40명의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 아동부였던 아이들이 지금은 중고등부를 이루는 주역으로 자라고 있으며, 대학생이었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도 생기면서 교회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한 가족이 되다 보니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기본과 원칙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보리떡 교회학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왜곡된 성공주의의 희생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그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한 진심어린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호기심만 유발하고 자극적인 욕구만을 채워주는 세속화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사귀어 얼마나 행복한 선물인지를 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영적 양육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학생들 심령 가운데 심어놓으신 원대한 비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복음의 무기로 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하며 지도해 갈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생명력을 잃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뜻이 보리떡 교회학교를 통해 한 부분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한 전도이야기

안산광림교회 전도사 이준호

안녕하세요. 안산광림교회에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올해로 3년째 파트담당 전도사로 중등부를 맡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부흥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함께 나누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저 또한 새롭게 도전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중등부는 80명의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전도 목표는 150명이었습니다. 2년째에 접어든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2014년 부흥목표를 500명이라는 불가능과도 같은 인원을 목표로 하고 한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진짜 500명을 전도한다는 마음보다는 500명의 아이들도 품을 수 있는 전도사, 교사가 되자는 다짐으로 잡은 목표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며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2014년 처음으로 150명의 인원이 넘는 친구들이 예배드렸고, 하반기 친구초청 때는 190명의 넘는 친구들이 예배하는 배가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올해 초 중학교 3학년의 많은 친구들이 고등부로 올라가 다시 80명의 아이들과 예배드리기 시작했지만, 올해 상반기 친구초청예배때 처음으로 약 200명의 친구들과 예배드리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친구들과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기간 동안 특별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



설날한복예배

라’였습니다. 마치 연인을 사랑할 때 모든 것에 시간을 투자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려면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중등부는 특별한 시간투자로 인해 아이들이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예배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다.

– 한달에 한번 있는 문화예배

2014년 부터 안산광림교회 중등부에서는 특별히 중등부학생들의 문화적 접근을 위해 한 달에 한번 문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춘기 특성상 다양한 변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예배를 만들어 함께 예배드렸던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반응도 좋고, 예배를 훨씬 더 잘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예배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그저 예배를 보는 관점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데에 목적을 두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월 : 설날한복예배(학생들이 한복을 입고와서 예배를 드림,

예배후에는 교회어른들에게 찾아가 세배를 드림)

- 3월 : 영화예배 (기존영화 예배 동일)
- 4월 : 초대교회 예배 (마이크/음향장비 모두 없애고 육성으로 예배,
동굴 분위기만들어 지하교회처럼예배)
- 5월 : 친구초청 주일 예배
- 6월 : 연극예배 (설교를 연극과 함께 드림)
- 7월 : 음악중심예배 (설교안에 예화를 학생들이 직접 특송을 불러 말씀을 함께전함)
- 8월 : 수련회

위와 같이 한달에 한번정도 학생들의 문화 뿐만 아니라 신앙적 교육까지 노린 다양한 예배들로 학생들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예배에 생동감을 주는 효과가 있었고, 주변 학교에 다양한 시도를 한 저희교회가 소문이 나서 알아서(?) 친구들이 오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 착한예배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요소는 많이 있지만, 요즘에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저희 중등부 친구들도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착한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



초대교회예배

기 전에 핸드폰을 선생님께 맡겨 1시간동안 핸드폰 없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스스로 낸 친구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선물을 주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는데, 착한예배를 시작한 이후 예배 분위기와 말씀 듣는 태도가 놀랍게 변화된 효과를 견었습니다. (ps: 선물을 고르는데에도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 저희 중등부는 절대로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주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선물을 준비해 학생들이 매주 기대할 수 있는 센스 있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ex: 겨울에는 호빵, 시험기간에 초콜렛, 특별한데이 때 그에 맞는 선물)

2. 전도에 시간을 투자하다

- 스쿨 어택 학교 심방

안산은 학부모들의 자녀들 보호가 특히 심한 곳중 하나인 곳이라 학교전도가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학교관계전도 였습니다. 이것은 심방과 전도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우선 전도사나 선생님들이 우리교회의 아이들을 만나러 학교를 찾아갑니다. 교회 학생을 보러 학교로 심방을 가는 것인데, 다만 그 학생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자신의 친구들을 함께 데



수련회 가정통신문



스쿨어택 도래전도

리고 나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과 친구들을 학교 근처에서 만나 우리교회 학생심방을 하면서 함께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를 만나 전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것보다 전도사 또는 선생님과 새 친구가 훨씬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전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등부와 같이 청소년기엔 또래집단이 굉장히 중요함으로 함께 모이는 또래 2-3명만 교회에 잘나 오게 하면 그 주변또래들은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학교에 가면 전도사나 교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집단 아이들 10-15명에서 학교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학생1명을 심방가 2명의 친구를 만나 전도하였더니 3명에서 자기또래 친구들을 전도해 지금은 30명의 남학생 또래모임이 모두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중등부는 그래서 또래 모임들의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 그런 친구들을 한반으로 묶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친구초청 주일

올해는 특히 친구초청 주일이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한번 씩 친구초청주일을 진행하는데 친구초청주일은 한달간 진행된다면 한 달



친구초청 주일에배

동안 전도설교 및 전도 분반을 하고 그달 마지막 주에 친구초청주일을 하여 간식과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학생들은 한달간 열심히 전도해 친구들을 데려오고 교회는 선생님과 임원단이 쵸트뿔 트송을 준비합니다. 저희 중등부는 매년 상반기/하반기 친구초청주일 때마다 새친구가 30-40명의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46명의 새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3. 교사들이 시간을 투자하다.

저희 중등부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헌신이 대단합니다. 이들이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중등부의 부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부장님을 필두로 각 학년주임선생님, 그리고 담임선생님, 보조 선생님들까지 포함하여 전심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전 교사모임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학년주임회의, 전체회의를 하면서 중등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지 의논합니다. 또한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 각 학년의 특성에 맞게 양육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부흥하여 한반에 30명을 담당할 정도로 교사가 부족함에도 불평하나 없이 모두 이들을 감당하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반모임을 가지고 심방을 하여 학생들에게 끈임없이 시간을 투자하며, 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고군분투 하기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의 기억할만한 것중 하나는 올해 2015년 여름수련회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모든 학생들의 부모님들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학생들의 영적상태와 수련회참가를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 부모님과 학생들이 감동받고 수련회를 반대하던 안믿는 부모님이 아이를 수련회에 보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음악예배때 선생님들이 직접 밴드를 구성해 열심히 연습하여 아이들을 위해 특송을 하기도 합니다. 학년별로 체육대회를 선생님들이 준비하여 선물과 밥까지 직접 준비해 아이들이 즐 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등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 투자하시는 선생님들로 인해 중등부가 날마다 행복하고 부흥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사밴드특송



학년교사모임

이처럼 저희 안산광림교회 중등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할때도 있고 넘어질때도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삶의 모든 시간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 성장할때까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교목 차은혜

얼마 전,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서재의 책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식들과 서적들을 참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말이야...”라고 말이지요. 저는 그 뒤에 생략된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 어플로 성서주석을 구입해 드렸거든요. 몇십 권으로 구성된 무거운 주식에 비해 어플은 훨씬 간단하고 사용하기가 손쉽지요. 그리고 보니 링 바인더에 차곡차곡 편지로 구멍을 뚫어 모아오던 설교는 어느덧 폴더 안 파일로 바뀌게 되었고, 비싼 돈을 주고 산 주식들은 서재 안의 자리만 차지하는,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두기도 벅찬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잖아요. 십여 년 전만 해도 말이예요.”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아, 이 글을 읽고 계신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께 이런 말을 해 봅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잖아요.”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처음 산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가고 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생소했었는데 말이지요. 단순히 컴퓨터 사용이 손쉬워지고 간편해진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활습관 자체가 변해가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과 많이 변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검색해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세대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기호와 삶의 습관이 다른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아이들은 생각 자체가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것이 통했던 세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

즘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르며,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고, 더 조심해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역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주장합니다. 아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하고, 더 많이 성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교육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성찰하고 ‘나’(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를 변화시키고, 돌아보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2015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2015년 6월 29일. 한 학생이 교목실 문을 열고 울상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이 학생이 울상을 지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학생 :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서 무작정 들어왔어요.

나 : (최대한 진심으로 공감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응. 무슨 일이야?

학생 : 제가 학교에서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에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눈물을 펄펄 흘렸습니다.)

나 : 기다릴게. 편할 때 말해.

학생 : 왜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죠?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보단,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욕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부모님께 잘못하면 죄짓는 거다. 이런 거요. 그리고 부모님을 구원 못 시키면 부모님은 지옥에 간대요. 그래서 빨리 부모님을 전도하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지옥에 계시나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죠? 그게 맞아도 말이에요.

나 : 응.... 그랬구나. 그게 많이 불편했구나.

학생 : 그런데 제가 우는 이유는, 다른 친구들도 따라서 3~4교회를 다녀봤는데, 거의 그래요.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간 교회들은 다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꾸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 선생님들은 교회에 빠지지 말라는 것만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목사님, 학교 예배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무언가를 계속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지요?

나 : 응.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무척 필요한 일이지. 기독교에서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거든.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학생 : 그런데 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 깊게 알고 난 후부터 배우고 싶어요. 제 마음도 위로 받으면서요. 그리고 그 힘이 생기면,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015년 7월 9일. 한 학생도 교목실 문을 열고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학생 : 저는 중학교 때부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한 친구에게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의 이야기를 모두 나열할 필요는 없어서 생략합니다.).

나 : 그랬구나. 그런데 나는 너에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너는 모태신앙이라 교회에 오래 나갔다고 했지? 그리고 나는 상담사는 아니잖아. 예수님께 그 마음을 좀 맡겨보면 어떨까? 늘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 보면 어떨까?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릴 향해 있고, 그리고 너에게 이겨낼 힘을 주실 거야. 널 예뻐하실 예수님께 너의 마음의 자리를 좀 드러보자.

학생 : 예수님께서서 이런 저를 예뻐하신다고요?

나 : 당연하지. 너의 어떤 모습도 예뻐하실 거야. 그냥 네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예뻐하셔. 네가 예수님을 떠나도 널 기다리시고 예뻐하실 거야.

학생 : (냉소적인 표정으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길 많이 못 들어봤는데. 원래 뭘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저는 제가 예쁘게 보이진 않지만, 믿어볼게요.

신기하게도 두 학생이 말하는 것들의 결론이 비슷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보려고 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삶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깨닫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먼저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아닌 교회들이 훨씬 많겠지요. 우연히 두 학생의 결론이 비슷하게 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과 권면의 방향만큼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교회교육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기독교인의 규범’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 말이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되어왔던 한국의 교육풍토일지도 모릅니다. ‘하면 좋은 것’, ‘해야 할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강조하고 있진 않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 보렴.”이라는 말 보다는 “그렇게 공부 안 하면 큰일난다.” 식의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지요.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과 표현을 많이 해 보자.” 대신에 “욕하지 마.”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가르쳐서 ‘안 하면 안 되게’ 만들거나, 혹은 ‘두려움’을 조장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의 효과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되지요. 교회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해 충분히 알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보기 전에 ‘죄’의 모습과 ‘죄’를 지으면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진 않았는지요?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기보단,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실 것’을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고, 근심이 가득한 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꿈’과 ‘진로’에 대해 수없이 듣지만, 그 이전에 소소한 친구관계, 그리고 시험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기도 하고, 아이돌스타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요. 부모님과 사소한 갈등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기도 할 테지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벗고, 조건 없는 사랑을 알려주며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일,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일, 그리고 고통과 인내도 축복임을 가르쳐서 꿈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

고,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2015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교사와 사역자의 온몸에 녹아들어 느끼게 해 주는 일입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하는 것,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날 향한 기적의 사건임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게 하고, 다른 이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마음껏 향해야 할 조건 없는 축복이 마치 물질이나 성공의 축복이 되어 버렸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날 향한 기적의 사건인 건 맞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이상한 것처럼 바라보진 않았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 곁에 있어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고민해 주는 것 대신, 훈계와 교훈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이야기로 충만해지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교리에 대해서만 강조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튼튼하게 믿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온몸과 마음과 생각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다름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일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사랑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삶에서 아름다움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말이지요.